

노형욱 장관, “취약계층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”

- 27일 서울 변동 영구임대주택 찾아 입주민 애로사항 청취·방역관리 강조 -

-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27일(목),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변동 영구임대주택을 방문하여 입주민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,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 현황을 살펴보았다.
- 노 장관은 “1990년 우리나라 최초로 건설된 서울 변동 영구임대주택에 금년 중 찾아가는 마이홈센터가 설치되고, 단지 내 유휴 공간에는 고령자복지주택이 증축되며, 노후 주택에는 그린리모델링이 시행될 예정이다”라며,
 - “이 사업으로 입주민들은 주거복지 전문가와 함께 일자리 제공, 음식 나눔 등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를 누리고, 전등·창호가 교체되어 관리비도 줄어 들고, 부엌·화장실 등이 개선되어 거주여건도 대폭 향상될 것이다.”라고 덧붙였다.
- 아울러, “변동과 같이 영구임대주택 대부분이 노후화된 현 시점에서, 노후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여 18.6만호 임대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고, 생활여건을 개선하겠다”면서,
 - “이와 함께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,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을 ‘25년까지 1만호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’이라고 강조했다.
- 끝으로, “설 명절을 앞둔 시점에서 주택시장은 안정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데,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맞춤형 주거복지도 강화되고, 방역도 빈틈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”고 당부했다.

2022. 1. 27.

국토교통부 대변인